

學會活動을 回顧하며



유 석 구

(大韓電氣學會 會長)

친애하는 會員 여러분! 지난 1년간 學會活動에 物心兩面으로 보살펴주시고, 적극적으로 聲援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感謝드리며, 希望찬 丁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學會가 더욱 發展하고, 會員 여러분의 家庭에 하루하루가 다 좋은날이 되기를 祈願하는 바입니다.

저는 1년전 學會活性化에 많은 業績을 남기신 前任 韓松曄 會長의 뒤를 이어, 1996年度 學會長의 重責을 맡고, 丙子年이 學會發展의 跳躍의 한해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學會는 모름지기 元老會員님들의 豊富한 經驗과 新進會員들의 卓越한 知識이 接木되고, 電氣工學을 바탕으로한 모든 分野의 人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情報交流의 큰 마당을 마련해야한다고 生覺하였으며, 나름대로 努力해왔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저는 1989年度에 學術理事로 選任된 후 계속해서 總務理事, 副會長, 次期會長, 會長의 임무를 맡아, 8년간 학회 임원으로서, 대과없이 저의 責務를 마무리하게 된 것은, 오직 會員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덕분이며, 이에 진심으로 感謝드립니다.

우리 學會는 올해 主要核心事業인 學會誌와 國文論文誌를 계획대로 發刊하였고, 英文論文誌인 “Journal of KIEE”를 年2회에서 年4회로 增刊하였으며, 전기·전자·정보·통신·관련 學會의 共同英文論文誌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Information Science”를 創刊하여 SCI에 登錄을 目標로 年4회 發刊하므로써 우리 學會의 世界化에 進一步하였습니다.

學術行事로는 7月 용평리조트에서, 夏季學術大會를 開催하였으며, 全國에서 1,300名의 많은 會員이 참가하여, 670여편의 論文과 研究開發成果들이 發表討論되었고, 특히 産業體 및 研究所에서도 200여편에 달하는 등 産業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名實相符한 産學協同의 學術大祝祭로 크게 成長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學會 主催로 작년 7月 大田 韓電 電力研究院에서 開催된 第 1 回 國際電氣工學學術會議(ICEE '95)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금년도 8月 11日 부터 15日까지, 中國 北京에서 開催된 第 2 回 ICEE '96 國際學術會議에서는 우리 學會에서 54편의 많은 論文이 발표되었고, 참가인원도 100여명 이상이 되는 등, 國際社會에서 韓國의 地位向上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아울러, 9月에 서울大學校에서 開催된 小型電動機 國際學術會議(SMIC '96)에도 10開國에서 300여명이 參加하여, 150여편의 論文이 發表되는 큰 成果를 이루므로써, 外國과의 學術 및 技術交流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日本電氣學會(IEEJ), 中國電機工程學會(CSEE)와의 學術交流協定에 의거, 兩國學會의 代表團을 夏季學術大會에 招請하여, 特別講演을 聽取 하는 등 國際交流活動을 展開하므로써, 外國學會와의 紐帶를 더욱 強化하였고, 지난 8月, 13日 中國 北京에서, 中國電工技術學會(CES)와 學術 및 技術協力에 관한 交流協定을 締結하여, 相互交流를 定例化하는 등 學會의 國際化 및 世界化의 位相提高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1世紀에는, 學問的發展이 더욱 加速化되도록, 電氣·電子分野의 技術用語 標準化 作業을 着手하였으며, 國際間的 技術競爭속에서, 電力産業의 技術 인프라 기반을 構築하기 위하여, 電力産業技術基準 마련에 學會가 적극 參與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學會는 1947년에 設立되어, 創立 50周年의 문턱에 와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50周年記念企劃委員會를 특별히 發足하고, 50年史 編纂에 着手하였으며, ISAP(Inteligent System Application to Power System) 國際學術大會를 誘致하여, 來年 創立記念行事 期間에 國內에서 開催할 수 있도록 諸般準備를 마련하였습니다. 밝아오는 새해는 學會 創立 50周年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서, 邊勝鳳 新任會長을 비롯하여 任職員 여러분의 健闘를 바라며, 會員 여러분의 聲援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年 동안 學會發展을 위하여, 적극 聲援하여 주신 會員 어리분과 任職員, 平議員, 支部長, 研究會 幹事長 및 編輯, 調査, 學術, 國際委員과 學會育成發展에 크게 기여해 주신 韓國電力公社를 비롯, 特別會員社와 産業體에 眞心으로 感謝드리고, 事務局 여러분의 勞苦를 치하하며, 이에 재차 感謝드리는 바입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